



### 삼국유사 인물학 여행(遊行)

‘감통’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 인과론에 기반한 작용과 반작용 주목해야

1. 감통과 신통  
『삼국유사』 전 9권 중 제 7권에 자리한 「감통」편은 모두 10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앞의 「의해」편이 교화의 의미를 풀이한 고승들에 대해 언급이고, 「신주」편이 밀승(密僧)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감통」편은 ‘자신이 느끼서 마침내 타인까지 움직인」[感而遂通] 신앙의 사례들과 사회적인 메아리를 싣고 있다. ‘선도성모 수회불사’와 ‘육면비 엽불서승’, ‘광덕 엄장’, ‘경흥우성’, ‘진신수공’, ‘월명사 도술가’, ‘선율환생’, ‘웅천사 해성가’, ‘정수사 구비녀’ 등이 감통편의 조목이다. 불보살의 조상(造像), 예배(禮拜), 엽불(念佛), 사리 봉안, 불경의 사경(寫經), 역경(譯經), 강경(講經), 승경(誦經) 등과 같은 ‘액션」[感]에 대해 불보살의 형상이 나타나거나 [見相], 소리가 들리거나[聞聲], 자신의 고통이 뱉혀 지거나[拔苦], 행복이 늘어나거나[增福], 지혜가 키워져 열리는[增智開慧] ‘리액션」[應]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감응은 중생의 요청[感]에 의해 불보살이 영험을 작용하는(動, 應) 것을 가리킨다.

조목별 내용을 보면 ‘선도산 신모(神母, 婆蘇)의 도움으로 불사를 완성’하고, 야간 집안의 여종인 육면(肉面)이 마타사에서 엽불하여 진신으로 왕생한다. 광덕(廣德)의 임제 뒤 그 아내와 통정하려는 엄장(嚴莊)에게 원효(元曉)에게 정관(淨觀) 수행을 배워 왕생하게 하고, 경흥(景興)이 국로(國老)가 되어 말을 타고 출가하다가 남산 문수사의 문수사(文殊像)의 일개유(一伽樓)로 말을 타지 않는다. 효소왕(孝昭王)이 행색이 남루한 승려에게 공양하였더니 그가 석가 진신(釋迦眞身)이었고, 월명사(月明寺)가 미륵의 도움을 받아 도술가를 짓자 두 해의 이변이 사라졌다. 선율(善律)이 『대만야경』을 펴내지 못하고 죽게 되자 명부(冥府)의 관리가 완성하고 오라고 하여 10일 만에 다시 살아나 15년 전 죽은 여인의 간청을 들어 점등(點燈)하여 명복을 빌자 여인은 고통을 벗어나고 선율은 경전을 완성하였고, 호랑이로 변신한 여인이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살생의 죄과를 참회하기 위해 김현(金現)에게 공을 세우고 죽자 그는 그녀를 위하여 호원사(虎巖寺)를 지어 추모하였다. 화랑들이 풍악산을 유람하다 해성이 심대성(心大星)을 범하여 유람을 그만 두자 웅천(隆天)이 향가 ‘해성가를 지어 노래하자 괴변이 사라지고 일본군이 물러갔으며, 황룡사의 정수(正秀)법사는 엄동설한에 천엄사 앞을 지나다가 길인이 해산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옷을 벗어 덮어 도와주었고 그로 인해 국사로 책봉되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감」(感)의 작용과 ‘통」(通)의 반응이 상호간격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어떠한 일방의 작용으로만 감동의 바다가 이루어질 수 없다. 감동의 바다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쌍방의 작용의 강도와 내용이 강력하고 간절해야 한다. ‘감 이수통」은 『주역』(周易) 「계사」(繫辭) 상(上)의 「생각이 없고[無思也], 행위가 없으며[無爲也], 고요하여서 움직이지 않다가[寂然不動] (스스로) 느껴서 마침내 천하의 연고에 통하기 때문이니[感而遂通天下之故] 천하의 지극한 신이 아니면[非天下之神] 그 누가 이와 더불어 할 수 있으랴[其孰能與於此]」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그런데 작용[感]의 주체는 승려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 편의 조목들을 보면 승

려(광덕과 엄장, 경흥, 월명, 선율, 웅천, 정수), 선도산 신모, 국왕(경덕왕), 일반 서민(김현), 노비(육면) 모두가 주체가 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도선(道宣, 596-667)은 『속고승전』에 「감통」편을 편재하면서 감통의 의미를 수행의 힘이 높은 고승(高僧)이 초인적인 현상인 기미(微)를 알아 느끼[感] 통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불교의 신앙 체계에서 일어나는 해아릴 수 없는[不思議] 영험을 ‘감통」(感通)이라고 풀이하여 이를 ‘감응」(感應)과 같은 의미로 파악하였다. 반면 찬녕(贊寧, 918-999)은 『송고승전』 「감통」편의 의미를 수행의 계위에서 최종 단계인 증거(證果)로 풀이하였다. 그는 “우리 교법 가운데에서 신해행증(信解行證)으로써 준거를 삼아보면 「역경」과 「전법」은 ‘믿음의 일으킴」[生信]에, 「의해」와 「습선」은 ‘이해의 자각」[悟解]에, 「명통」과 「호법」은 ‘실행의 뒤임」[修行]에, 「신이」와 「감통」은 ‘깨침의 과위」[果證]에 가깝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도선은 감통 혹은 감응에 대한 인식이 남달라 출세자에게 삼보의 이로운을 널리 알리 미혹하고 깨달은 이 모두가 믿음을 내도록 하기 위해 『집신주삼보감통록』(集神州三寶感通錄) 지었으며, 만년에는 자신의 감통 체험과 세인들의 감통에 대한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 『도선율사감응록』(道宣律師感應錄)을 지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이후 불교사를 감통사관(感通史觀) 혹은 감응사관(感應史觀)으로 보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

### 2. 주체와 사례의 다양성

일연은 중국 양당송(梁唐宋) 삼대(三代) 고승전의 편재를 의식하면서 『삼국유사』를 편찬하기는 했지만 그보다 훨씬 자유롭고 독자적인 체제로 구성하였다. 그는 「감통」편을 편재하면서 도선의 감응사관 혹은 감통사관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승려 중심의 체제로 이루어진 삼대 고승전과 달리 작용[感]의 주체와 반응[動]의 사례가 훨씬 더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작용의 주체가 이동하고 반응의 사례가 증폭되기도 한다. 먼저 일반인들이 주체인 경우를 살펴보자. 즉 ‘선도성모 수회불사」 조에서는 안홍사에 머물던 지혜(智惠) 비구니가 불사에 착수하지만 점차 그의 불사에 감응한 선도산 신모(婆蘇)로 감동의 주체가 이동하고 있다. ‘육면비 엽불서승」 조에서는 귀진(貴珍) 아간이 선사(善士) 수심 인과 서방 왕생을 기약하며 엽불 수행을 발의하지만 이틀보다 그의 집 여종인 육면이 먼저 왕생하게 된다. ‘진신수공」 조에서는 효소왕(孝昭王)이 평소 남루한 옷을 입은 승려에게 공양을 하며 ‘누구에게도 국왕이 직접 불공하는 재에 참석했다고 하지 말라’고 하자 도리어 비구는 ‘폐하도 진신석가에게 공양했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함으로써 주체가 진신석가의 화현인 비구로 이동하게 된다.

‘김현감호」 조에서는 흥륜사의 탑돌이에 나선 청년 김현(金現)이 처녀로 변한 호랑이를 만나 정을 나누고 인간과 동물의 소통의 길을 열고 있다. 하지만 하늘의 처벌을 두려워한 오빠들이 달아나자 호녀(虎女)는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며 이는 남군의 경사요, 호랑의 부족의 복이며, 나라 사람들의 기쁨 등 다섯 가지의 이익이 있게 되니며 자신을 죽인 뒤 저를 위하여 절을 세우고 불도를 강권하여 좋은 과보를 얻



일연 스님이 저술한 <삼국유사>. 이중 감통편은 신앙의 감동으로 세상을 움직인 일화를 담고 있다.

### 불교만의 영험함을 풀어내 출세가 체험으로 세인 감동 다양한 사례로 사회 반영

는데 도움이 되어달라고 청하였다. 이에 고뇌하던 김현은 호랑이를 잡아 벼슬에 오른 뒤 그녀를 위하여 호원사(虎巖寺)를 세우고 『범망경』을 강론하여 호랑이의 저승길[冥遊]을 인도함으로써 호랑이가 제 몸을 희생하여 자기를 성공하게 한 은혜에 보답하였다. 이 설화는 당시 신라인들의 생명관과 신앙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

승려들이 주체가 된 예들은 다음과 같다. ‘광덕 엄장」 조에서는 도반이었던 광덕이 먼저 왕생하자 남은 엄장이 광덕의 처와 부부가 되어 동침을 청하자 관음(觀音)의 응신(應身)인 아내가 욕망을 절제하고 수행을 권유한다. 관음의 응신으로 화현한 광덕의 처는 향가 ‘원왕생가」를 지어 범장보살이 48대 서원을 이루고 아미타불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를 되묻고 있다. 이 조목의 주체는 광덕과 엄장으로 출발하지만 점차 그들의 아내로 주체가 이동하고 있다. ‘월명사 도술가」 조에서는 4월 초하루에 두 해가 나타나 열흘 동안 사라지지 않자 월명이 부름을 받고 미륵보살에게 지극한 덕과 지극한 정성을 드렸더니 해의 변괴가 사라졌다. 월명은 일찍이 죽은 누이동생을 위하여 향가를 지어 제를 올리지 않던 회오리바람이 일어나더니 종이돈을 날려 올라가 서쪽으로 사라지게 한 효험이 있었다.

### 3. 향가의 주역성과 감동의 인과

‘웅천사 해성가 진평왕대」 조에서는 신라 세 화랑의 무리가 금강산에 가려고 하는데 마침 해성이 나타나 심대성(心大星)을 범하자 남도들이 의아스럽게

### 신인 선과 인과법 따라 계급 초월 능력중시 강조 당시 신라사회 이상향 나타내

생각하여 그 여행을 그만두려 하였다. 이 때 웅천사가 향가를 지어 부르자 해성의 변괴가 즉시 사라지고 일본 군사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 도리어 경사가 되었고 대왕이 크게 기뻐하여 화랑들을 금강산에 보내어 노닐게 하였다. 「감통」편에는 『삼국유사』에 실린 14편의 향가 중 모두 4편이 실려 있다. 그런데 이 편에 실린 ‘도술가와 ‘제망매가’, ‘원왕생가’, ‘해성가」는 모두 ‘주력」(呪力) 혹은 ‘주술」(呪術)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도술가」는 두 해를 물리치고, ‘제망매가」는 죽은 누이를 감응케 하고 있으며, ‘원왕생가」는 엄장의 정욕을 물리치고 정진하게 하며, ‘해성가」는 해성의 변괴를 물리치게 하고 있다. 향가는 신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즐겨온 친근한 노래였다든 점에서 ‘감통」 혹은 ‘감응」과 긴밀하게 상응하고 있다.

‘경흥우성」 조에서는 ‘국가의 원로」이자 ‘나라의 스승」인 ‘국사」(國師) 즉 ‘국로」(國老)였던 경흥이 늘 린 말을 타고 출근하자 행색이 초라한 거사로 화현한 문수보살이 나타나 깨우침을 주자 이후부터 다시는 말을 타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은 당시 신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최고위층 승려들의 사치에 대한 질책이 반영된 것이다.

‘선율환생」 조에서는 『대만야경』을 펴내기를 발원한 선율의 일화가 전해진다. 선율이 일을 다 마치기 전에 저승으로 잡혀갔으나 저승의 관리로부터 돌아가 그 일을 마지라니 얘기를 듣고 돌아온다. 선율은 죽은 지 15년이 된 여인의 청원에 의해 기름으로 등을 밝히고 베를 팔아 불경을 반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여 여인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한다.

‘정수사 구비녀」 조에서는 눈이 많이 쌓인 어느 겨울날 한 가난한 여인이 아이를 낳고 열여 죽어가자 정수법사가 여인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주고 별거 벗은 채로 절로 달려가 거적으로 몸을 덮고 밤을 세운 일화가 전해진다. 정수법사는 한밤중에 하늘에서 대궐 뜰에 소리쳐 외치기를 ‘황룡사의 승려 정수를 마땅히 왕사로 봉해야 할 것이다’고 하자 왕은 그를 맞이하여 국사(國師)로 책봉하였다. 이들 이야기는 모두 선인(善因)에 따른 선과(善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감통」편에는 불교의 인과론에 기반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작용이 있어야 반응이 있듯이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 몸으로는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말고 골래에 갇혀 있는 것을 풀어주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 주며,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지 말고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입으로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한 말을 하며, 이간질을 하지 말고 한결같은 말을 하며, 허황된 말을 하지 말고 진실한 말을 하며, 욕지거리를 하지 말고 고운 말을 하는 것이다. 생각으로는 탐내지 말고 만족을 알고, 성내지 말고 온화하며, 어리석지 말고 슬기로우며 저야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 있는 열 가지 좋은 행위를 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는다.

『삼국유사』 「감통」편의 ‘감응」은 이러한 불교의 인과론에 의한 작용과 반응의 상호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신라 왕실 주변의 귀족불교 혹은 왕실 불교와 달리 서민불교 또는 대중불교의 지향이 담겨 있다. 배타적 권위로 휘두르는 불교가 아니라 상호적 관계로 맺어가는 불교, 골품이나 계급이라는 걸레를 우선시 하는 불교가 아니라 능력과 인품이라는 알맹이를 주시시 하는 불교, 완장과 권력으로 어깨에 힘이 들어간 불교가 아니라 겸허와 하심으로 온몸을 던지는 불교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보통 사람들과 함께 이루고 함께 나누는 사회, 자기가 이룬 만큼 자기가 얻는 사회에서 진실한 믿음과 치열한 구도가 이루어지는 신라사회를 꿈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재래신앙과 불교신앙의 습합, 지체와 격식을 뛰어 넘은 삶의 체득, 중생을 제도하는 이မ်없는 승려의 보살행, 변괴와 간난을 물리치는 향가를 지은 이들을 통해 신라사회가 꿈꾸었던 이상향을 담아내고 있다.

고려의 일연은 신라사회의 이러한 ‘감동」과 ‘신통」을 『삼국유사』 속에서 재현하면서 고려사회 속에 신라사회의 감동을 재현하고 싶어 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리상호, 『사건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 (7차, 1999).
- 권상로, 『삼국유사』(동서문화사, 1976; 1996).
- 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민족사, 2006).
- 정병삼, 『삼국유사 신주명과 감통편의 이해』, 『감통과 신통을 보여준 신라인』(신라문화연구원, 2010).
- 고영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 영가 찾는 법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 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무료공개강좌 - 6월 7일 (금) 오후 2시
- 대상 - 역학 왕초보자, 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의 내용
  - 기 초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1. 조상(귀신)이 발동한 것을 아는 법 : 어느 조상에게 빌어야 되나? - 대.세운에서도 발동한 것을 찾는 법
    2. 기도를 하더라도 묵어있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 가서 풀어야 된다.
    3. 본 법을 알면 무속인의 주장신도 알 수가 있다.
    4. 무속인 보다도 더 정확하게 뽑아낸다.
    5. 결혼하면 양가집 조상이 부담하는 가정
    6. 결혼이 안되거나 결혼을 해도 풍파가 많은 가정

---

### 통신반 모집

---

## 백암역리원

02)597-1101, 011-9150-2284  
1,9호선 노랑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우리은행) 옆

##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가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형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축적되어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

# 수정기공 특강안내

**신지식인 대한민국 정부인정 660 2012년 신지식인 최우수상 수상**



- \*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 \* 정가강의일자: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 6시
- \*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 \* 모집인원 : 매회 8명 이내
- \* 연 락 처 : 010-3463-7806
- \*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